

## 『離騷』의 주석과 번역 (2)

徐 盛\*

### 제 6문단

跪敷衽以陳辭兮，	옷자락을 깔고 꿇어앉아 말을 아뢰니
耿吾旣得此中正。	내 마음은 正道를 얻었음을 분명히 알겠네
馳玉虬以乘鸞兮，	네 마리 虬龍이 끄는 봉황수레를 타고
溘埃風余上征。	홀연히 큰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가네
朝發軔於蒼梧兮，	아침에 남쪽 蒼梧에서 출발하여
夕余至乎縣圃。	저녁에 서쪽 崑崙山 縣圃에 이르네
欲少留此靈瑣兮，	하늘의 궁문 앞에서 잠시 머물려 했더니
日忽忽其將暮。	석양은 누엿누엿 저물려 하네
吾令羲和弭節兮，	나는 羲和에게 명하여 해를 실은 수레를 멈추게 하고
望崦嵫而勿迫。	崦嵫山을 향하여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네
路曼曼其脩遠兮，	길은 아득하여 길고도 먼데
吾將上下而求索。	나는 천상과 지상을 오르내리며 찾아 헤매었노라

○ 敷衽 : 敷는 펼치다. 衽은 옷깃. 옷의 앞자락이 길므로 꿇어앉을 때 바닥에 깔리게 된다. ○ 耿 : 밝게, 환하게. 『초사』에 자주 보이는 부사어 선행 용법으로 구

\* 열린사이버대 中國語科 助教授

전체를 수식한다. ○ 中正 : 正道, 바른 이치. 굴원이 자신의 마음을 호소하는데 대해 비록 舜의 대답은 없으나 무언중에 舜의 긍정을 들었다는 뜻. ○ 駟 : 원래는 한 수레를 끄는 네 필의 말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동사로 쓰여 “네 마리가 끌게 하다”는 의미가 되었다. ○ 玉蚘 : 玉은 美稱, 혹은 백색, 혹은 옥 장식을 한 모습. 蚘는 뽕 없는 용. ○ 驚 : 봉황의 일종. ○ 濫(합) : 갑자기. ○ 埃風 : 먼지를 안은 큰바람. ○ 發軔 : 꺾목을 빼다. 즉, 출발하다. 軔은 멈춘 수레를 움직이지 않도록 바퀴에 괴어 놓은 나무. ○ 蒼梧 : 산 이름. 즉, 舜이 묻힌 九疑山. 현재 호남성 寧遠縣 동남 쪽 소재. ○ 懸圃 : 懸圃 혹은 玄圃라 쓰기도 한다. 신화에 나오는 지명으로 崑崙山의 중간 층. 崑崙산은 상, 중, 하 세 층으로 되어 있는데 현포는 중간 층에 해당한다. ○ 靈瑣 : 천상의 문. 靈은 신령스럽다는 뜻이고, 瑣는 문짝 위에 새겨진 무늬를 말한다. ○ 羲和 : 태양의 신. 『산해경』에 “羲和는 天帝 俊의 처로, 열 개의 태양을 낳았다. 東南海 밖의 甘水에는 羲和의 나라가 있고, 그녀는 甘淵에서 태양을 씻는다.”는 기록이 있다. 그녀는 또 매일 태양을 수레에 싣고 하늘을 달린다는 기록도 있다. ○ 弭節 : 절도를 멈추다. 즉, 수레를 멈추다. ○ 嶠嶠(엄자) : 신화 중의 해가 지는 곳에 있는 산 이름. ○ 漫漫 : 漫漫. 아득히. 길이 멀고 아득한 모양. ○ 脩遠 : 脩는 길다. ○ 求索 : 찾다. 찾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여러 설이 있다.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현인(王逸), 賢君(朱熹), 天帝가 있는 곳(王邦采), 女人(馬茂元) 등으로 풀이되나, 구체적인 대상을 지칭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신적인 태도를 표현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제 6문단의 天遊는 3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는데, “朝發軔於蒼梧兮”부터 여기까지가 제1일에 해당한다. (謝濟世『離騷解』)

飲余馬於咸池兮,	咸池에서 말에게 물 먹이고
總余轡乎扶桑.	扶桑에 말고삐를 매어두네
折若木以拂日兮,	서쪽 끝 若木을 꺾어 해가 지지 않도록 막고
聊逍遙以相羊.	잠시 조용히 거닐며 소요하네

前望舒使先驅兮,	앞에서는 望舒에서 인도하게 하고
後飛廉使奔屬。	뒤에서는 飛廉보고 따르라 하네
鸞皇爲余先戒兮,	나를 위해 난새가 앞에서 호위하는데
雷師告余以未具。	차비가 덜 되었다고 雷神이 아뢰네
吾令鳳鳥飛鸞兮,	나는 봉황으로 하여금 높이 올라
繼之以日夜。	낮과 밤을 연이어 날아가게 하네
飄風屯其相離兮,	회오리바람이 나의 수레에 불어오더니
帥雲霓而來御。	구름과 무지개를 거느리고 마중나오네
紛總總其離兮,	어지러이 모였다가 흩어지고
斑陸離其上下。	오색찬란한 빛이 위아래로 섞여드네
吾令帝閭開關兮,	나는 天帝의 수문장에게 문을 열라 명하나
倚閭闔而望予。	그는 天門에 기대어 나를 바라보기만 하네
時曖曖其將罷兮,	날은 어둑어둑하여 하루가 저무려 하는데
結幽蘭而延佇。	난초를 엮어 들고 천문 앞에서 배회하네
世溷濁而不分兮,	세상은 혼탁하여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好蔽美而嫉妬。	사람들은 나의 미덕을 질투하기 좋아하네

○ 咸池 : 신화 속의 태양이 목욕하는 곳. 『회남자』에 “태양은 湯谷에서 나와, 咸池에서 목욕하고 扶桑을 스치고 나온다”는 구절이 있다. ○ 馬 : 여기서의 말은 실제의 말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虬와 鸞을 가리킨다. ○ 總 : 묶다. ○ 鸞 : 고삐. ○ 扶桑 : 신화 속의 거대한 나무의 이름으로 태양이 떠오르는 곳. ○ 若木 : 신화 속의 큰 나무의 이름으로 곤륜산의 서쪽 태양이 지는 곳에 있다. 푸른 잎에 붉은 꽃이 피는데, 그 빛이 지하 세계를 비춘다. ○ 聊 : 잠시. ○ 相羊 : 徜徉. 배회하다, 거닐다. 여기에서도 제 1일과 마찬가지로 저녁이 되어 서쪽에 도착해도 얻는 바가 없다. ○ 望舒 : 신화 중의 달의 신. 수레에 달을 싣고 천상을 달린다. ○ 飛廉 : 바람의 신, 風伯이라고도 한다. ○ 屬 : 연이어서, 따르다. ○ 鸞皇 : 전설 중의 봉황의

한 종류. 皇은 鳳 ○ 雷師 : 雷雨의 신으로 豐隆이라고도 한다. ○ 飄風 : 旋風, 돌개바람. ○ 屯 : 모이다. ○ 相離 : 相은 어디로 향하는가를 나타내는 대상을 말하고, 離는 麗로 불다. ○ 御 : 逐(아), 맞이다. ○ 總總 : 많은 모습. 紛總總은 다음 구의 斑陸離와 마찬가지로 『초사』에 자주 보이는 3자 부사어. ○ 斑 : 어지러운 모습. ○ 陸離 : 뒤섞인 모습. ○ 帝閭 : 천궁의 문지기. ○ 閭闔 : 신화 중의 天門. 굴원이 왜 天門에 들어가려고 하느냐는 데에 대해 여러 설이 있다. 讒佞의 무리를 미워하여 천제에게 호소하기 위하여(王逸), 자신의 뜻을 펼치려고(朱熹), 여인을 구하기 위하여(聞一多) 등이다. 그러나 역대 주석가들은 天帝란 곧 초나라 왕을 비유한다고 말하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한다. “飲余馬於咸池兮”부터 여기까지가 天遊의 제2일에 해당한다. “큰바람에 실려 하늘에 올라가는”(埃風上征) 天遊는 앞에서 말한 “사방 먼 곳으로 구경갈까”(往觀四荒)와 호응하면서 굴원의 이상 추구를 상징한다. 여기에 나오는 구름을 타고 달을 부리는 것은 모두 자신의 품덕과 재능이 뛰어난을 상징하는 듯하다. 그러나 여기서도 천문은 열리지 않으며 그의 추구는 좌절된다.

朝吾將濟於白水兮,	아침에 나는 白水를 건너
登閭風而縹馬.	閭風山에 올라 말을 매어두네
忽反顧以流涕兮,	홀연히 둘러보고 눈물을 흘리나니
哀高丘之無女.	높은 산에 美人이 없음을 슬퍼하네
溘吾遊此春宮兮,	나는 泠泠히 동쪽의 仙宮에 가서 노닐며
折瓊枝以繼佩.	붉은 瓊樹의 꽃을 꺾어 패식으로 덧붙이네
及榮華之未落兮,	이 꽃이 시들어 떨어지기 전에
相下女之可詒.	下界의 미인을 찾아가 선사하리라
吾令豐隆乘雲兮,	나는 구름의 신 豐隆을 불러 구름을 타고
求宓妃之所在	宓妃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네
解佩纆以結言兮,	패식을 풀어 연모의 뜻을 보이며

吾令蹇脩以爲理  
 紛總總其難合兮,  
 忽緯繡其難遷  
 夕歸次於窮石兮,  
 朝濯髮乎洧盤  
 保厥美以驕傲兮,  
 日康娛以淫遊  
 雖信美而無禮兮,  
 來違棄而改求  
 覽相觀於四極兮,  
 周流乎天余乃下  
 望瑤臺之偃蹇兮,  
 見有娥之佚女  
 吾令鴉爲媒兮,  
 鴉告余以不好  
 雄鳩之鳴逝兮,  
 余猶惡其佻巧  
 心猶豫而狐疑兮,  
 欲自適而不可  
 鳳皇既受詒兮,  
 恐高辛之先我  
 欲遠集而無所止兮,  
 聊浮遊以逍遙  
 及少康之未家兮,  
 留有虞之二姚  
 理弱而媒拙兮,

蹇修에게 명하여 중매를 서게 하네  
 혼담이 분분히 오가며 될 듯 말 듯 하더니  
 별안간 일이 어긋나 그녀 마음이 돌아섰네  
 그녀는 저녁에 窮石에 돌아가 자고  
 아침엔 洧盤 물가에서 머리를 감네  
 宓妃는 자신의 미모를 믿고 교만하며  
 날마다 노닐고 제멋대로 즐긴다네  
 비록 그녀가 진실로 아름답지만 禮가 없으니  
 자, 그녀를 버려 두고 달리 찾아보자  
 사방의 끝까지 이리저리 둘러보고  
 하늘을 돌아 본 후 세상에 내려오네  
 멀리 높다란 玉臺를 바라보니  
 바로 有娥國의 미녀가 보이네  
 나는 짐새에게 중매를 서게 했더니  
 짐새는 그녀가 아름답지 않다고 말하네  
 숫비둘기가 가겠다고 지저귀지만  
 나는 그가 경박하고 간사해서 내키지 않네  
 마음은 주저하여 결정을 못 하고  
 혼자 구혼하려 하나 예의상 그럴 수도 없네  
 봉황이 簡狄에게 예물을 전하러 갔다 하니  
 帝嚳이 나를 앞지를까 두렵네  
 멀리 가고자 하나 머물 곳이 없어  
 잠시 이리저리 떠돌며 거닐어보네  
 少康이 아직 장가들기 전인 때를 틈타  
 有虞國의 두 여인에게 청혼하려네  
 중매장이가 무능하고 서툴러서

恐導言之不固。	아마 혼담이 그리 미덥지 않으리라
世溷濁而嫉賢兮，	세상은 혼탁해서 어진 이를 시샘하고
好蔽美而稱惡。	미덕은 가리고 악행은 칭찬하네
閨中既以邃遠兮，	규중은 깊고 멀어서 통하기 어렵고
哲王又不寤。	현명한 군왕 또한 깨닫지 못하네
懷朕情而不發兮，	충정은 가졌으나 발휘할 곳 없으니
余焉能忍與此終古？	내 어찌 이런 상황을 참고 오래 살 수 있으리

○ 白水 : 신화 속의 곤륜산에서 흘러나오는 강. 그 물을 마시면 죽지 않는다고 한다. ○ 閨風(낭풍) : 신화 속의 산 이름으로 곤륜산 위에 있다. 여기에 오르면 죽지 않는다고 한다. ○ 縹(설) : 묶다. ○ 高丘 : 높은 산언덕. 王逸은 초 나라에 있는 산 이름이라고 했지만, 天遊의 공간배경이 신화 속이므로 바로 앞에 나오는 곤륜산 위의 閨風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無女 : 이때의 여인은 곤륜산 등 신화를 배경으로 나타나는 神女이다. '여인 찾기'는 『離騷』의 주요한 소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이 여인이 무엇을 상징하는가에 대해서는 역대로 중설이 분분하다. 신하(王逸), 충신(呂向), 현군(朱熹), 현숙한 여인(錢登之), 뜻이 같은 사람(徐文靖) 등이 있으나 이중 朱熹의 설이 가장 널리 채용되었다. 그러나 앞에서 “못 여자들이 나의 미모를 질투하여”(衆女嫉余之蛾眉兮)에서 여인을 신하에 비유했으며, 또 이 문단에서 高辛과 少康 등 군주와 여인이 대응되어 나오는 것을 보면 이들 여인이 군주를 상징한다는 朱熹의 설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단의 끝 부분을 보면 “규중”과 “현명한 군왕” 두 방면에서 서술하고 있는데, “현명한 군왕” 부분이 앞의 제 2일의 여정을 말한 것이라면, “규중”은 제 3일인 이 문단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결국 여인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여러 제자들이 변절한 데다, 여기에서 同道도 만나지 못해 굴원의 고독감은 극한에 이른다. ○ 春宮 : 신화 속의 동방에 있는 仙宮. ○ 瓊枝 : 신화 속에 나오는 붉은 옥으로 만들어진 나무의 가지. 여기서 瓊枝를 꺾는다는 것은 瓊枝에 달린 꽃을 꺾

는다는 뜻. ○ 繼 : 더하다, 이어 붙이다. ○ 榮華 : 榮은 나무의 꽃, 華는 풀의 꽃. 여기서의 앞의 瓊枝에 달린 꽃을 말한다. ○ 下女 : 하계의 여인. 朱熹는 神女の 시녀로 보았으나 高丘와 상대적인 의미로 하계의 여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 詒 : 胎와 같다. 주다, 증명하다. ○ 豐隆 : 구름의 신. ○ 宓妃 : 전설에 나오는 伏羲氏의 딸. 洛水에 빠져 죽어 洛水의 신이 되었다고 한다. ○ 佩纒(패양) : 허리에 차고 있는 띠. ○ 結言 : 연모의 뜻을 나타낸다. 초 나라에서는 남녀가 서로를 연모하여 자신의 뜻을 나타낼 때는 허리에 찬 향초를 풀어 이를 매듭지어 상대에게 주는 풍습이 있기 때문에 '結言'이라고 하였다.(聞一多 설) ○ 蹇修 : 王逸은 伏羲氏의 賢臣이라 하였다. 그러나 결국 중매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그는 언변이 그다지 뛰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理 : 使者, 결혼 중매인. ○ 緯纒(위획) : 王逸은 '어그러지다(乖戾)라고 풀이하였다. ○ 次 : 묵다. ○ 窮石 : 신화 속의 지명. 『淮南子』에서는 곤륜산의 네 강 가운데 하나인 弱水의 근원지라고 하였다. 郭沫若은 羿가 窮石에 살았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두 사람 사이의 음란한 관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 滄盤(유반) : 신화 중의 강 이름. 王逸은 『禹·大傳』을 인용하며 崦嵫山에서 흘러나온 강이라 하였다. 강가에서 머리를 감는다는 것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행위로 보인다. ○ 保 : 의지하다. 여기까지 12구는 첫 번째 여인인 宓妃에 대한 구애와 그 실패를 표현했다. ○ 覽相觀 : 이 세 글자는 모두 보다는 뜻으로, 동일한 뜻을 이어서 나열하는 『초사』의 구법 가운데 하나이다. ○ 四極 : 하늘의 사방 끝. ○ 周流 : 두루 다니다. ○ 瑤臺 : 옥으로 만든 대. ○ 偃蹇 : 높고 솟은 모양. ○ 有娥 : 전설 중의 나라 이름. ○ 佚女 : 미녀. 유융국의 미녀란 곧 전설 속의 簡狄으로 나중에 高辛氏 帝嚳의 妃가 되어, 殷의 시조인 契를 낳는다. ○ 鳩(짐) : 전설 속의 毒鳥로, 수컷은 運日이라 하고 암컷은 陰謀라고 한다. 깃털에 독이 있으므로 이를 술에 타서 사람을 죽이는 독약으로 쓴다. 古書에 이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오나 지금은 볼 수 없다. ○ 惡(오) : 싫어하다. ○ 佻巧(조교) : 방정맞고 말만 번지르하다. ○ 猶豫 : 주저하다. ○ 狐疑 : 여우처럼 의심하다. ○ 適 : 가다. 고대의 예법에는 남녀가 결합하려면 반드시 중매의 소개를 통해야 한다. ○

詒 : 胎, 주다. 여기서는 명사로 예물. ○ 鳳皇 : 玄鳥. 전설에 의하면 帝嚳이 玄鳥를  
 파견하여 高臺에 있는 簡狄과 중매하게 했다. 「天問」과 「九思·思美人」에는 帝嚳과  
 玄鳥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 高辛 : 帝嚳 ○ 集 : 머물다. ○ 少康 : 하 나라를 중  
 흥시킨 군주. ○ 家 : 동사로 장가들다, 결혼하다. ○ 有虞 : 하 나라의 부락 국가.  
 ○ 二姚 : 有虞國 군주의 두 딸. 少康이 有虞國으로 도망갔을 때 그 군주는 자신의  
 두 딸을 少康에게 시집보냈다. ○ 導言 : 중매장이가 유도하는 말. ○ 邃遠 : 깊고  
 멀다. ○ 哲王 : 지혜로운 군왕. 懷王을 비유. “朝吾將濟於白水兮”부터 여기까지가 天  
 遊의 제 3일에 해당한다. 세 번에 걸쳐 미녀를 찾는 과정을 서술하나 모두 실패한  
 다. 이는 굴원의 처경을 비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굴원은 순 임금에게 자신의 공정함을 말하고 무언의 인정을 받은 후, 자신감  
 에 가득 차서 하늘을 주유한다. 위로는 天帝를 배알하고 아래로는 미녀를 만나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길을 찾으나 이 모든 일이 실패로 끝난다. 현실 속의 일을  
 다시 한 번 신화의 공간 속에서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추구하고 좌절을 다른 각도  
 에서 분석한다.

## 제 7문단

索藟茅以筵尊兮,	띠풀과 대나무 조각 찾아 꺼내어
命靈氛爲余占之	靈氛에게 내 점을 치게 하였네
曰：“兩美其必合兮，	내가 말하네：“뛰어난 사람에겐 반드시 짝이 있다는데
孰信脩而慕之？	진실로 아름답다면 누가 따르지 않겠는가?
思九州之博大兮，	九州가 넓고도 큰 것을 생각하면
豈唯是其有女？”	어찌 오직 여기에만 美人이 있겠는가?”
曰：“勉遠逝而無狐疑兮，	靈氛이 말하네：“권하노니 주저말고 멀리 가소서

孰求美而釋女?	고결한 사람을 찾는 이라면 어찌 당신을 놓치리오?
何所獨無芳草兮,	어디든 향기로운 풀이 있기 마련인데
爾何懷乎故宇?	당신은 어찌하여 자기 집만 연연해하오
世幽昧以眩曜兮,	세상은 어둡고 사람은 혼미하여
孰云察余之善惡?	우리들의 옳고 그름을 알아주지 못하오
民好惡其不同兮,	사람의 호불호는 제각기 다른데
惟此黨人其獨異.	이곳의 黨人들은 특히 더욱 심하다오
戶服艾以盈要兮,	사람들은 허리 가득 쑥을 차고 있으면서
謂幽蘭其不可佩	오히려 幽蘭은 패용하지 마라고 한다오
覽察草木其猶未得兮,	풀에 보고도 분별하지 못하니
豈程美之能當?	옥에 대해 어찌 평가할 수 있겠소
蘇糞壤以充幃兮,	향주머니에 똥과 흙을 가득 채우면서
謂申椒其不芳.”	도리어 申椒는 향기롭지 않다고 말한다오”

○ 索 : 찾다, 취하다. ○ 蘼茅 : 고대에 점을 칠 때 사용하던 띠풀. ○ 以 : 과(와)  
 ○ 筮箒(정전) : 점칠 때 쓰는 대나무 조각. ○ 靈氛 : 영험한 무당의 이름. 그러나 이 이름은 다른 문헌에는 나오지 않는다. 聞一多是 「九歌·雲中君」의 王逸 주석에 “초 나라 사람들은巫师를 靈이라고 부른다.”는 말에서 靈氛이 무당이라고 하였고 아래에 나오는 巫咸과 같이 신화 속의 신령스런 무당이라고 보았다. ○ 曰 : 이 4구는 굴원이 점을 칠 때 묻는 말이다. 明代까지의 주석가들은 모두 靈氛의 말로 보았으나 淸代의 魯筆이 屈原의 언사로 본 이래 戴震 등 많은 주석가들이 이에 따랐다. 여기서서는 후자를 채용하였다. ○ 兩美必合 : 당시 유행하던 속담으로 “뛰어난 사람은 반드시 짝을 만난다”는 뜻. 其는 긍정적인 어조를 표현하는 조사. ○ 信脩 : 진실로 아름답다. ○ 慕 : 추구하다. 이 구에 대해서는 역대로 제설이 분분한데, 朱熹는 慕之와 占之가 通韻된다고 하였지만, 聞一多是 慕와 占은 통운이 안 되므로 慕는 ‘莫念’이 합해진 것으로 보았다. 戴震의 견해가 전통적인 해석을 대표하는데 이를

굴원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그 누가 진실로 아름다워 나를 따르겠는가?”로 해석하였다. ○ 是 : 이곳. 초 나라. ○ 曰 : 靈氛의 말. ○ 勉 : 힘쓰다. ○ 釋女 : 당신을 제외하다. 女는 汝, 즉 굴원. ○ 芳草 : 여기서는 찾고 있는 美人을 상징한다. ○ 故宇 : 집. ○ 眩耀 : 눈이 어지러워 사물을 잘 분간하지 못하다. ○ 戶 : 사람들, 여기서는 앞의 黨人을 지칭한다. ○ 要 : 腰, 허리. ○ 理(정) : 옥의 일종. ○ 當 : 평가하다. ○ 蘇 : 가지다, 취하다. ○ 幃 : 향주머니.

欲從靈氛之吉占兮,	靈氛의 길점을 따르려 하나
心猶豫而狐疑.	마음은 주저하여 결정하지 못 하네
巫咸將夕降兮,	巫咸이 오늘 저녁에 강림한다 하니
懷椒糈而要之	산초와 젓메 쌀을 품고 가 맞이하려네
百神翳其備降兮,	온갖 신들이 하늘을 덮고 일제히 내려오니
九疑繽其並迎	九疑山에서도 신령들이 성대하게 나와 마중하네
皇剡剡其揚靈兮,	번쩍이는 빛을 뿜고 신령을 드러내며
告余以吉故	나에게 고대의 길한 일들 들려주네
曰：“勉陞降以上下兮,	“천상과 지상을 오르내리면서
求槩獲之所同.	같은 법도를 지키는 사람을 구하여라
湯禹巖而求合兮,	殷의 湯과 夏의 禹는 성실하게 인재를 구하여
摯咎繇而能調	伊尹과 咎繇를 각각 만나 君臣이 조화로웠네
苟中情其好脩兮,	진실로 마음이 고결함을 좋아한다면
又何必用夫行媒?	어찌 중매인이 꼭 필요하겠는가
說操築於傅巖兮,	傅說은 傅巖에서 흙벽을 쌓는 사람이었는데
武丁用而不疑	殷의 武丁은 망설임 없이 그를 등용했네
呂望之鼓刀兮,	姜太公은 시장에서 칼 쓰는 도살꾼이었는데
遭周文而得舉	周의 文王을 만나 등용되었네
甯戚之謳歌兮,	甯戚은 쇠뿔을 두드리며 노래 부르다가

齊桓聞以該輔。	齊桓公이 그 노래 듣고서 보좌로 삼았다네
及年歲之未晏兮，	나이가 아직 늦지 않았을 때 지인을 찾고
時亦猶其未央。	때가 아직 다하지 않았을 때 사업을 벌이게
恐鵝鵝之先鳴兮，	두려운 것은 (시기가 지나) 접동새가 먼저 울어
使夫百草爲之不芳。”	온갖 꽃들이 시들어 떨어지는 것이라네”

○ 吉占 : 길한 점괘. 靈氛은 屈原이 초 나라를 떠나면 그 미덕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했다. 굴원이 주저하는 이유에 대해서 王逸은 초 나라를 생각하기 때문이라 하였고, 朱熹는 巫咸의 판단을 더 들어보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 巫咸 : 殷 나라의 신령한 무당이자 賢臣 『山海經』에는 靈山에 있는 10명의 神巫 가운데 첫 번째로 巫咸을 들었다. 결국 巫咸은 역사 속의 인물과 신화 속의 인물로 각각 존재한다. 巫咸은 앞에 나온 靈氛에 비해 격이 한층 더 높다. ○ 夕降 : 저녁에 강신하다. 신은 대부분 밤에 강림하며, 무당을 통하여 말을 전한다. ○ 懷 : 품다. 신에 대한 경건함을 표현하고 있다. ○ 椒糈(초서) : 산초(椒)는 신이 내려오게 하기 위해 쓰고, 정미(糈)는 신에게 바치기 위해 쓴다. 각각 후대의 향과 제물에 대응한다. ○ 要 :邀와 같다. 여기서는 맞이하다는 뜻. ○ 鬻(예) : 댄다, 가리다. ○ 九疑 : 九疑山. 蒼梧山이라고도 했다. 지금의 호남성 寧遠縣 동남쪽에 있으며 九疑山이라고 쓰고 있다. 여기에서는 구의산의 신들을 가리킨다. 앞 구에서 天神들이 내려오니 뒤 구에서 초 나라의 地神들이 맞이하는 형국이다. ○ 皇 : 王逸은 皇天이라 하고, 朱熹는 百神이라 하였고, 馬茂元은 百神 가운데 가장 존귀한 신이라 하였다. ○ 剡剡(섬섬) : 번쩍번쩍. 빛을 내뿜는 모양. ○ 揚靈 : 신령을 드러내다. 「九歌·湘君」에서도 “橫大江兮揚靈”라는 구가 있다. ○ 吉故 : 이전의 좋은 이야기. 아래에 나오는 君臣이 서로 어울리는 예들을 말한다. ○ 曰 : 말을 하는 주체는 巫咸으로 보아야 타당하다. ○ 陞降以上下 : 올라서 하늘에 가고 내려서 지상에 이른다.(朱熹 설) ○ 槩獲(구획) : 槩는 曲尺, 즉 직각자. 獲은 자. 矩獲은 법칙을 뜻한다. ○ 同 : 뜻을 같이 하다. ○ 擎(지) : 湯의 현능한 재상이었던 伊尹의 이름. 원래 요리사였는데 湯이 그

의 음식을 맛보고 채용하였다. ○ 咎繇(구요) :禹의 현능한 신하로 皋陶(고요)라고 쓰기도 한다. ○ 說(열) : 傅說(부열). 殷 나라 高宗의 재상. ○ 築 : 절구공이. 흙벽을 쌓을 때 강도를 높이기 위해 다지는 막대기. 『孟子』에도 “傅說學於板築之間”이란 말이 있다. ○ 傅巖 : 지명. 지금의 山西省 平陸縣의 동쪽. ○ 武丁 : 殷의 高宗의 이름. 傅說은 원래 傅巖에서 벽쌓는 일을 하였는데, 武丁이 꿈에서 만난 현인을 찾다가 그를 발견하곤 곧 채용하였다. ○ 呂望 : 姜尚, 즉 姜太公. 周 나라의 개국 현인. 원래는 朝歌에서 백정으로 있다가 나이 들어서는 渭水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文王을 만나 중용되었다. ○ 鼓刀 : 칼을 두드리다. 즉 칼을 쓰다. ○ 甯戚 : 춘추시대 衛 나라의 賢士 齊 나라 동문 밖에서 살 때 하루는 소에게 꼴을 먹이다 쇠뿔을 두드리며 노래 불렀는데, 지나가던 齊 桓公이 그 노래를 듣고 그의 현능함을 알아보고 채용하였다. ○ 該輔 : 두루 보좌하다. ○ 屨 : 늦다. ○ 未央 : 끝나지 않다. ○ 鵝鵝(제결) : 접동새. ○ 不芳 : 시들다.

何瓊佩之偃蹇兮,	나의 패옥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衆夔然而蔽之	그러나 사람들이 어둡게 가려버리네
惟此黨人之不諒兮,	여기의 黨人들은 곧바르지 않으니
恐嫉妬而折之	패옥을 질투하여 깨뜨릴까 두렵네
時繽紛其變易兮,	시국은 어지럽고 변화가 많으니
又何可以淹留.	내 어찌 여기 오래 머물 수 있으랴
蘭芷變而不芳兮,	난초와 구릿대는 향기를 잃고
荃蕙化而爲茅.	진초와 혜초는 띠풀로 변하였다
何昔日之芳草兮,	어이하여 예전에 향기롭던 풀들이
今直爲此蕭艾也?	지금은 억새와 대쑥이 되었는가
豈其有他故兮,	여기에 어찌 다른 이유가 있으리오
莫好脩之害也!	고결한 성품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일세
余以蘭爲可恃兮,	나는 본래 난초만은 믿고 있었는데

羌無實而容長	실속 없이 외모만 번지르르 하구나
委厥美以從俗兮,	자신의 미덕을 버리고 세속을 좇아
苟得列乎衆芳.	향초의 대열에 겨우 끼었구나
椒專佞以慢愒兮,	산초는 전횡하고 아첨하고 오만하며
椒又欲充夫佩褱.	오수유는 향주머니에 들어가려 하네
旣干進而務入兮,	승진을 추구하고 이익을 힘써 찾으니
又何芳之能祗	어느 향초가 향기를 뿜을 수 있겠는가
固時俗之流從兮,	세상 사람들은 본래 부화뇌동하구나
又孰能無變化?	어느 누가 변함 없이 지조 있게 살겠는가
覽椒蘭其若茲兮,	산초와 난초를 보아도 변절하였거늘
又況揭車與江離?	하물며 이들보다 못한 계차와 강리임에랴
惟茲佩之可貴兮,	오직 나의 패식이 귀중하나
委厥美而歷茲	그 미덕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지금에 이르렀네
芳菲菲而難虧兮,	나의 향기는 농밀하여 흩어지지 않으며
芬至今猶未沫	나의 향내는 지금도 지워지지 않았네
和調度以自娛兮,	패옥 소리 맞춰 걸으며 스스로 즐거워하고
聊浮遊而求女.	이리저리 다니며 미녀를 찾으리라
及余飾之方壯兮,	나의 패식이 아직 많고 아름다운 때
周流觀乎上下.	천상과 지상을 오르내리며 둘러보리라

○ 瓊佩 : 즉 玉佩. 옥으로 자신의 미덕을 비유했다. 앞의 “折瓊枝以繼佩”란 구와 연관된다. ○ 偃蹇 :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앞에 “望瑤臺之偃蹇兮”란 구에선 “높다”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번성하다”는 뜻이다. ○ 葳然 : 덩수룩이 ○ 不諒 : 믿음의 없다. ○ 折之 : 之는 패옥을 가리킨다. ○ 繽紛 : 원래 아름답게 뒤채는 모습을 형용하나 여기서는 세상이 어지럽다는 뜻. ○ 淹留 : 머무르다. ○ 茅 : 락풀. 여기서는 모든 악초를 대표하는 提喻法으로 사용되었으며, 또 小人을 비유한다. 난초와

구릿대가 향기를 잃고 혜초와 전초가 변하였다는 것은 군자가 소인으로 변하고 신뢰가 아침으로 바뀌어졌다는 뜻이다.(王逸의 해설) ○ 直 : 정말로 ○ 蕭艾 : 역새와 대쑥. 악초를 나타냄. ○ 蘭 : 여기의 蘭과 아래의 椒에 대해 王逸과 洪興祖는 楚懷王의 아들인 子蘭과 동생인 司馬子椒로 풀이하였으나, 朱熹 이후 많은 주석가들은 아래의 揭車나 江離와 함께 일반적인 용례로 풀이하였다. 여기의 蘭은 앞에서 말한 “余既滋蘭之九畹兮”의 蘭으로,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馬茂元의 해설) ○ 可恃 : 믿을 수 있다. ○ 羌 : 어조사. ○ 容長 : 외모가 좋다. ○ 委 : 버리다. ○ 衆芳 : 여기서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권세자들. ○ 專佞 : 전횡과 아침. ○ 慢愒(만도) : 오만하다. ○ 檉(살) : 오수유 나무(吳茱萸). 외형은 산초와 비슷하나 향기가 없다. ○ 夫 : 어조사. ○ 干進 : 높은 벼슬을 추구하다. ○ 務入 : 군왕 앞에 나가기를 몰두하다. ○ 祗 : 振, 떨치다. (王引之 설) ○ 沫(매) : 어둡다, 흠어지다. ○ 和 : 조화롭게 하다. 동사. ○ 調度 : 몸에 붙인 패옥이 걸을 때 부딪히며 나는 리듬과 박자. 이 문단은 굴원은 巫咸의 말에 대한 답이다.

靈氛의 점괘를 듣고 巫咸의 권고를 들은 후, 굴원은 자신이 모함을 받고 고립무원하게 된 것은 사실 고결한 품성과 뛰어난 재능 때문이며, 그의 역정은 오랜 고난 속에 변하지 않은 강인함을 드러낸 사실을 알게 된다. 같은 문제에 대해 靈氛과 巫咸의 결론이 다른데, 靈氛은 멀리 떠나라고 권하고, 巫咸은 正道를 지키며 뜻이 맞는 사람을 구하라고 권한다. (洪興祖는 靈氛과 巫咸의 의견이 같다고 해석하였다.)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떠나야 할지 국가를 위해 남아야 할지에 대해 굴원은 시종 깊은 갈등에 빠진다. 굴원은 두 가지 의견을 분석한 후 초 나라를 떠나 천상과 천하를 둘러볼 결심을 한다.

## 제 8문단

靈氛既告余以吉占兮,	靈氛이 나에게 吉占을 말했으니
歷吉日乎吾將行.	吉日을 선택하여 떠나려 하네
折瓊枝以爲羞兮,	玉樹의 가지 꺾어 肉脯로 삼고
精瓊爨以爲飧.	옥가루 곱게 뺏아 양식으로 삼네
爲余駕飛龍兮,	飛龍이여, 나를 위해 수레를 끌어라
雜瑤象以爲車.	옥과 상아 깎아서 수레를 장식하네
何離心之可同兮,	마음이 다르면 하나 되기 어려우니
吾將遠逝以自疏.	내 장차 멀리 떠나 스스로 소원해지리라
遭吾道夫崑崙兮,	곤륜산에서 길을 꺾어 휘돌아가며
路脩遠以周流.	멀고 긴 길을 따라 사방을 돌아다니네
揚雲霓之晻藹兮,	雲霓가 깃발처럼 일어나 햇빛을 가리고
鳴玉鸞之啾啾.	옥으로 만든 난새의 방울이 짚랑이며 운다
朝發軔於天津兮,	아침에 은하수 나루에서 출발하여
夕余至乎西極.	저녁에 세상 서쪽의 끝에 이르렀네
鳳皇翼其承旂兮,	봉황이 날개 펴 깃발을 받아들고
高翱翔之翼翼.	가지런히 열 맞추어 높이 높이 날아가네
忽吾行此流沙兮,	나는 홀연히 流沙 지역에 이른 후
遵赤水而容與.	赤水를 따라 한가히 거니네
麾蛟龍使梁津兮,	蛟龍을 시켜 다리를 만든 후
詔西皇使涉予.	西皇에게 명하여 날 건너달라 하네
路脩遠以多艱兮,	길은 아득히 멀고 또 험난하여
騰衆車使徑待.	뭇 수레에 전언하여 직접 호위하게 하네
路不周以左轉兮,	不周山을 지나서 왼쪽으로 돌아들어

指西海以爲期	西海를 가리켜 그곳에서 만나자 하네
屯余車其千乘兮,	수많은 나의 수레를 한 곳에 모아
齊玉軻而並馳	차축을 나란히 하며 함께 날아가네
駕八龍之婉婉兮,	구불구불 여덟 마리 용을 몰아가니
載雲旗之委蛇	구름으로 만들어진 깃발이 펄럭이네
抑志而弭節兮,	마음을 가라앉히고 수레를 멈추니
神高馳之邈邈	나의 넓은 아득히 높이 높이 달려가네
奏九歌而舞韶兮,	九歌를 연주하고 九韶 춤을 추게 하며
聊假日以媮樂	시간을 내어서 잠시나마 즐거워하네
陟陸皇之赫戲兮,	햇빛 찬란한 하늘로 오르는데
忽臨睨夫舊鄉	홀연히 고향 땅이 내려다보이네
僕夫悲余馬懷兮,	마부도 슬퍼하고 내 말도 아쉬워
蜷局顧而不行	돌아본 채 움추리며 나아가질 않네

○ 靈氛 : 앞에서 서술한 靈氛의 점괘와 巫咸의 강신에 대해서, 여기서는 왜 靈氛의 이름만을 들었는가에 대해, 洪興祖 이래 주석가들의 해석이 다양하다. 洪興祖는 靈氛의 점괘에 대해 굴원은 처음에 의심했다가 巫咸의 吉故를 듣고 그 뜻이 같으므로, 靈氛의 占이 吉함을 알게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후의 주석가들은 靈氛이 초 나라를 떠나라고 하고 巫咸은 남아서 軍신간에 화합을 추구하라고 한데 대해, 굴원은 靈氛의 의견을 따르므로 그의 이름을 제시했다고 하였다. ○ 歷 : 선택하다. ○ 羞 : 王逸은 肉脯로 해석하였다. 진귀한 음식을 말한다. ○ 精 : 찜다, 빵다. 위의 折과 대응하여 동사로 쓰였다. ○ 爨(미) : 부스리기. 瓊爨는 옥가루. ○ 粃(장) : 양식. ○ 雜 : 여러 가지를 함께 쓰다. 동사로 사용하였다. ○ 象 : 상아. ○ 自疏 : 自遠 스스로 멀어지다. ○ 遭(전) : 轉 구비 돌다. 초 나라 방언. ○ 崑崙 : 신화 속의 하늘에 통하는 산. 앞에서 이미 崑崙山의 일부인 玄圃山과 閼風山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다시 崑崙山이 나온 것은, 앞에서는 崑崙산의 일부만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모두

둘러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 雲霓 : 구름과 무지개. 여기서는 깃발을 나타냄. ○ 暎暎(엄애) : 햇빛이 가려져 그늘이 생긴 모양. ○ 鸞(난) : 봉황과 같은 종류인 난새. 여기서는 난새 모양의 옥으로 된 방울. ○ 啾啾(추추) : 짹짹. 의성어로 방울이 울리는 소리. ○ 天津 : 은하수의 나루터.箕星과 斗星 사이에 있다. ○ 翼 : 여기서는 동사로, 날개짓하다는 뜻. ○ 旅(기) : 깃발. ○ 翼翼 : 가지런한 모습. ○ 流沙 : 신화 속에 나오는 서쪽의 사막 지역. 『招魂』에 “西方之害, 流沙千里”라는 구절이 있고, 『山海經』에도 “流沙出鐘山”이라고 지명으로 나온다. ○ 赤水 : 신화 속의 강 이름으로 곤륜산에서 발원한다. ○ 容與 : 조용하고 한가한 모양. ○ 麾 :揮와 같다. 지휘하다. ○ 梁 : 동사로 다리를 만들다는 뜻. ○ 詔 : 명령하다. ○ 西皇 : 서방의 신으로 이름은 少暎이다. ○ 騰 : 전하다, 傳言하다. ○ 徑 : 직과 같다. 직접. ○ 待 : 洪興祖는 校語에서 ‘侍’로 보았으며, 馬茂元 역시 아래 구의 ‘期’와 협운이 되므로 여기에 동의했다. ‘徑侍’는 가까이에서 호위하다는 뜻. ○ 路 : 동사로 쓰였다. ○ 不周 : 신화 중의 산 이름. 곤륜산의 서북쪽에 있으며 바람이 나오는 곳이라 한다. ○ 西海 : 신화 속의 서쪽에 있는 바다 이름. ○ 期 : 약속하다. 여기서는 약속한 장소, 즉 목적지. 굴원은 『이소』에서 崑崙, 西極, 流沙, 赤水, 西皇, 不周, 西海 등 서북쪽에 대한 지명을 많이 쓰고 있음을 주석가들은 지적하곤 하였다. 그에 대한 해석은 부분하여 정론이 없다. ○ 鞅(대) : 바퀴통 바깥에 마멸을 막기 위해 감아 붙인 휘갑쇠. ○ 婉婉 : 구불구불. ○ 委蛇(위이) : 깃발이 길게 나누끼는 모양. 聯綿詞로 逶迤, 逶移, 委他, 倭遲, 倭夷, 威夷 등으로 쓰인다. ○ 邈邈(막막) : 막막하다. 아득하고 끝없는 모양. ○ 抑志 : ‘志’에 대하여 王逸과 朱熹는 해석하지 않았으나, 후인들은 心志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游國恩과 馬茂元 등 현대의 주석가들은 ‘鞅’로 풀이하여 ‘抑志’를 ‘깃발을 내리다’로 해석하였다. 여기서는 전자를 따른다. ○ 九歌 : 고대의 음악. 앞에서 말한 하 나라 초기의 음악. ○ 韶 : 즉 九韶. 舜의 치세 때의 舞樂, 혹은 하나라 초기의 樂舞라고 한다. ○ 假日 : 시간을 빌려. ○ 媮 :愉와 통한다. 즐기다. ○ 陟陞 : 오르다. ○ 皇 : 皇天의 준말. 하늘. ○ 赫戲 : 환하다. 밝은 모양. 戲는 曦와 통한다. ○ 臨 : 위에서 아래를 면하다. ○ 睨(예) : 걸눈질

하다. 흘겨보다. ○ 僕夫 : 마부. 여기서는 봉황과 교룡. ‘馬’는 앞에서 말한 飛龍 ○ 蜨局(권국) : 몸을 구부리다.

靈霧의 권고를 받아들인 후 굴원은 다시 한 번 천상으로의 여행에 오른다. 그러나 그의 고민은 해결되지 않고 초 나라에 대한 미련도 버리지 못한다. 이상을 찾아 떠나느냐, 아니면 은둔하며 초 나라에 남느냐는 거취 문제에서 굴원은 끝내 해결점을 찾지 못하지만, 이 모든 것이 화려한 언어와 아름다운 환상 속에 치열한 정신의 투쟁으로 새겨졌다. 광대한 천계와 신비로운 신화세계를 장엄하고 자유로이 여행하면서도 잠시 보이는 고향의 모습에 자신의 진실을 발견하게 되는 수법은 태산이 무너지다가 멈추어선 듯 강렬한 인상을 준다.

亂曰 :	총괄해 말한다.
已矣哉!	아, 끝났구나.
國無人莫我知兮,	나라엔 현인이 없고 나를 알아주는 이도 없으니
又何懷乎故都.	내 또한 어찌 이 나라를 연연해 하리오
既莫足與爲美政兮,	그들과 더불어 美政을 행할 수 없으니
吾將從彭咸之所居.	내 장차 彭咸이 행한 바를 따라야 하리라

○ 亂 :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 정리한다는 뜻이다. 이때는 ‘亂’의 훈을 ‘어지럽다’와 반대의 의미로 붙인다. 곧 작품을 완성한 다음 작품의 대의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을 ‘亂’이라 한다. 둘째, 음악의 마지막 장을 말한다. 음악이 끝날 때 박자가 빨라지며 리듬이 촉급해지고 여러 음이 한꺼번에 어지럽게 뒤섞이게 되는데 이를 ‘亂’이라 한다. 『離騷』와 같은 장편을 음악에 붙였을 리는 없겠지만, 어휘가 형식적으로 전이되어 사용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 已矣哉 : 감탄사로 “끝났다.”는 뜻. 『論語』에도 “已矣乎! 吾未見好德如好色者也.”란 말이 있다. ○ 故都 : 초 나라의 수도인 郢都, 혹은 故國 ○ 彭咸 : 팽함의 사적에 대해서는 王逸의 주석 외에는 보이지 않아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 굴원의 작품에는 앞에서 “願依彭咸之遺則”

나 「九章·悲回風」에 “托彭咸之所居”라는 구절이 있는 등 모두 6번에 걸쳐 彭咸을 언급하고 있지만 모두 물에 빠져 죽는다는 뜻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결말의 우울한 정조를 보면 팽함을 따른다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이 작품이 頃襄王 시기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물에 빠져 죽기 20여년 전인 懷王 시기에 쓰여진 것을 생각해 보면, 굴원은 그의 정신의 가열함에서 자신의 운명을 미리 통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편의 총괄 부분으로 그의 인생과 고민을 간결하게 요약하였다.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줄거리는 나라에 현능한 군주와 신하가 없어 자신은 방축되고 美政은 행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자신의 뜻을 찾아 나서는 길고 먼 여정이 이어진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판단을 누나 女嬃와 靈氛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듣게 된다. 먼저 女嬃는 굴원에게 자신을 낮추고 현실에 어울려 적응하라고 충고하는데 이에 대해 굴원은 舜에게 역사의 법칙을 말하고 遠遊를 떠난다. 이는 “현실-역사-天遊”의 구조를 이룬다. 다음에, 靈氛은 초 나라를 떠나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라고 하며 巫咸은 역사적인 예를 들어 현실에 적응하라고 각기 다른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굴원은 이상을 좇아 天遊에 나선다. 역시 “현실-역사-天遊”의 구조이다. 두 차례의 구조를 거치면서 굴원은 점점 의식적으로 초 나라를 떠날 결심을 하게 된다. 그러나 천상을 오르다가 언뜻 내려다 본 고향의 모습에 말들이 발을 멈추는데서 고국에 대한 정감은 이 모든 판단과 분석에 앞서 더욱 강렬한 것임을 알게 된다. 『이소』는 개인과 국가, 현실과 환상, 역사와 신화가 아름다운 언어로 어우러진 뛰어난 작품이다.

#### <參考文獻>

[東漢]王逸注, [宋]洪興祖補注, 『(楚辭章句)楚辭補注』, 中華書局, 1957年.

[宋]朱熹, 『楚辭集注』, 上海古籍出版社, 1979年.

[明]王夫之, 『楚辭通釋』, 上海人民出版社, 1975年.

[清]蔣驥, 『山帶閣注楚辭』, 中華書局上海編輯所, 1958年.

[清]戴震, 『屈原賦注』, 中華書局, 1999年.

馬茂元, 『楚辭選』, 人民文學出版社, 1958年.

金開誠·董洪利·高路明, 『屈原集校注』, 中華書局, 1996年.